



권영국 | (주)곤지암레저 환경기술인

필자는 2박 3일간 회사 하기휴가 기간에 후쿠오카를 다녀왔다.

전날 계속 비가 내리더니 막상 출발하는 날은 화창한 날씨로 변해 있었다.

회사가 동경으로 이전하여 일본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이사를 했으니 한번 휴가 때 다녀가라는 연락이 와서 2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했다. 여러 번 가보지 못했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국에 있는 딸 사위들이 잘 챙겨주어 그나마 여행을 순조롭게 다녀 올 수가 있었다.

JAL 972편 11시 35분 출발

프랑스 격언에 <여유를 갖고 서둘러라>라는 문구를 상기 시키면서...

영종도 공항은 넓고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시설들이고 주변 서해바다와 갯벌들이 한눈에 전개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기 시켜주고 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바다가 오염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후쿠오카 시는 인구가 약 400만 정도이고, 최첨단 야구장인 후쿠오카돔 시설과 유명한 왕정치 감독이 있으며 여러 차례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팀이 있으며 또한 명란 젓갈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국을 떠나 올 때 쉬는 날에는 모든 일 제쳐놓고 즐겨야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비행기를 같이 탄 세반스티안 학생은 고대 재학생인데 일본에 초청받아 간다고 했다.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약 1시간 정도 나누다 보니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딸과 손자, 손녀가 함께 마중 나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오랜만에 딸과 아이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 왔다.

큰사위는 일본에서 중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막내아들은 사가 대학교 도예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후쿠오카는 부산과 같이 바닷가 주변에 있으며 제일 가깝다 아마 부산까지 배로 3시간 정도면 간다고 한다. 도시고속도로가 해변 주변으로 위치하

여 자연경관도 매우 아름답다.

그날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음악 공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일본의 음식은 와서 먹어 보았지만 양이 적고 한국체질에 잘 맞질 않으나 한국식 음식이 많이 나왔다. 또한 물가도 비싸다 보니 한국 돈에 계산에 맞추면 못산다.

저녁에는 지우오라는 활어회집에 들어갔는데 대형 배를 건조해 놓고 배 주위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놔으며 손님들이 낚아 올린 물고기를 회를 떠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었다. 마침 필자와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와 함께 낚시를 하기 시작했고 손녀가 대어를 낚아 올려 함께 있던 손님들이 전부 박수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한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갑을 챙기지 못한 사정 얘기를 하였더니 나중에 그 동네를 지나가면 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고맙고 친절하 마음씨에 감동했으며 자연스럽게 택시를 또 타고 싶어진다.

다음 날에는 디아지부시에 있는 풀장에 갔다.

풀장에서 사위와 손자, 손녀들의 물장구 치고 노는 모습이 정겨웠던지 일본기자 한분이 취재하여 갔다. 규슈지방에 역사를 말해 주듯 유물들이 잘 보관·전시 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여행하는 동안 후쿠오카의 날씨가 좋아 여행하기가 참 좋았다. 당시 일본 후쿠오카는 약 32℃이며 도로는 좁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고 포장이 잘 되어있어 자전거 타기가 편리하며 풍요롭게만 느껴진다. 어느 장소에 가서 보아도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환경에 관련 교육은 유치원에 입학 할 때부터 실천과 행동으로 가르치며 먼저 부모님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환경보전은 실천이 중요하며 누구나 책임의식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마치고 볼링장에서 가족단

위로 게임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하늘에서 본 맑은 공기 바다에서 본 맑은 물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먼저 설 수 있는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항상 그 수준에서만 머물기 마련인 것이다.

돈만 많이 있다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필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향후는 환경을 최우선 하는 국가 및 국민만이 선진국가요 일등국민이요 일등회사가 되며 세계를 지배 한다고...

혼자 다녀온 여행길이지만 대우도 잘 받고 환경에 대한 산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공해관리기사 시절부터 환경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길 바라며 자식들 덕분에 후쿠오카의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 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필자를 초빙 해준 일본 가족들과 준비해준 한국 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인사와 감사를 드린다. ◀

